

| | | | | |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 금융위원회 |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4px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 | | | |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|
| | 보도 | 2021.2.9.(화) 10:00 | 배포 | 2021.2.9.(화) | |
| 책 임 자 |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윤 병 원(02-2100-2530) | 담 당 자 | 김태훈 서기관(02-2100-2533) 이소민 사무관(02-2100-2535) 조윤수 사무관(02-2100-2859) | | |
| |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이 한 진(02-2100-2970) | | 김종식 사무관(02-2100-2974) | | |
| |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(02-2100-2620) | | 장지원 사무관(02-2100-2696) | | |

제 목 : 「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」 개최

- ① 「핀테크·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」 과,
- ② 「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」 을 논의하였습니다.

[「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」 주요 논의 내용]

◆ **(배경)** 급속한 디지털금융화, 플랫폼의 금융진출 본격화 등에 따라, 디지털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전반의 정비가 긴요

➔ 「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」에서는 핀테크·빅테크 등의 건의과제를 바탕으로, 디지털금융 혁신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

* 10차례 핀테크·빅테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 적극 수렴

◆ **(논의)** ①디지털신사업 추진여건 개선, ②핀테크-금융사 협업 촉진, ③디지털 인프라 관련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과제를 논의

① (디지털 新사업)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,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대상 확대, 통합인증 시스템 도입 등

② (핀테크-금융사 협업촉진) 「핀테크육성 지원법」 제정, 「금융-핀테크 매칭 플랫폼」 구축, 핀테크 IR·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

③ (디지털 인프라) 망분리규제 합리적 개선, 비대면 금융서비스시 안전하고 편리한 출금동의를 위한 제도개선 등

- ◆ **(규제개선) 총 74건의 건의과제 중 52건(70%) 즉시 개선 추진**
(11건 중장기 검토, 11건 수용 곤란)

[건의과제 검토 결과]

| 구분 | 수용 | 중장기검토 | 수용곤란 | 합계 |
|-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|----|
| 제도개선 과제 | 31 | 10 | 11 | 52 |
| 기타 현장애로 해소과제 | 21 | 1 | 0 | 22 |
| 합계 | 52 | 11 | 11 | 74 |

[주요 개선과제]

| 과제 | 기타 현장애로 해소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허용 |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'매칭 플랫폼' 구축 |
|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대상 확대 | 핀테크 기업들의 IR·해외진출 지원 |
|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도입 | 정책금융 지원제도 안내 포털 구축 |
|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법령해석 명확화 | 핀테크 기업 민원 접수 창구 개설 |
|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법적 기반 마련 | 비조치의견서 관련 컨설팅 강화 |
| 망분리규제 단계적 개선 | 핀테크 해외진출을 위한 통·번역 지원 |
| 오픈뱅킹 정보공유 범위 확대 | 오픈뱅킹 정보제공 API 구축 지원 |
| 다양한 동의·인증방식 도입 | 중소 핀테크 기업 전용 홍보관 운영 |
| 디지털금융 업권 표준약관 제정 | 핀테크 취업박람회 정기적 개최 |
| 마이데이터 전송대상 정보범위 확대 추진 | IT 전공자의 핀테크 산업 진입 제고 |

- 아울러, 2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파악한 개선필요사항을 반영, 「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」을 마련하였음
 - 「디지털 샌드박스」 도입 : 혁신적 아이디어 모의시험 기회 제공
 - 샌드박스 운영개선 : 안전성 입증된 서비스 부가조건 적극 완화 등
 - 정책금융 등 지원강화 : 핀테크 성장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 등

- ◆ **(향후 계획)** 수용 과제는 개선 계획에 따라 방안 발표, 규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, 향후에도 규제개혁 및 현장 소통을 지속

I.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

□ 도규상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6차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에서는

① 핀테크·빅테크 등이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
「핀테크·빅테크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」과,

- * ① 디지털 신산업 추진여건 개선 ② 금융회사-핀테크 협업 강화
③ 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 등의 방안 포함

② 2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파악한 개선 필요사항 등 반영한
「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」을 논의하였습니다.

- * ①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식 개선
③ 정책금융 등 지원강화 방안 등 포함

※ 부위원장 모두발언은 [첨부 1] 참조

[제6차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 개요]

• 일시 : '21.2.9(화) 14:00~15:30 (영상회의)

•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

- (공동주재)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, 정순섭 서울대 교수
- (금감원) 김근익 수석부원장
- (금융권) 한동환 KB금융지주 부사장,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,
황원철 우리은행 디지털전략단장, 이인석 삼정KPMG 전무이사
- (핀테크·빅테크) 김용진 서강대교수,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
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, 류준우 보맵 대표
- (전문가) ,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, 강경훈 동국대교수
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, 홍대식 서강대교수,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
- (노조) 최재영 금융결제원(추천), 김준영 신한카드(사무금융노조 추천)

※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영상회의로 진행

II. 주요 논의 사항

1 핀테크·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

①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허용, 중소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시 중계기관 활용 등 디지털新사업 추진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.

1.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허용하겠습니다.

□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소액후불결제서비스는 「금융규제 샌드박스」를 통해 적극 허용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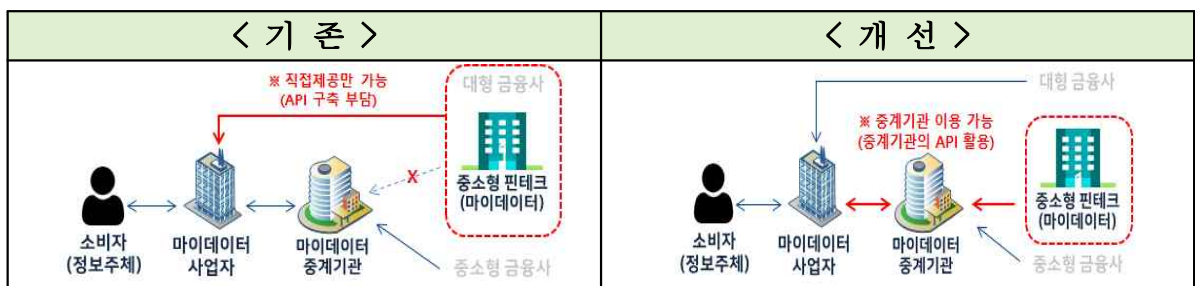
*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

→ 사회초년생,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도 플랫폼의 非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2. 중소 핀테크(마이데이터 영위)들도 중계기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.

□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핀테크기업도 「마이데이터 중계기관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→ 중소 핀테크 기업이 고객정보 보호, 부가서비스 개발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.



3.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.

□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시 정보 제공 금융회사 수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인증을 도입하겠습니다.

→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, 소비자의 정보주권 행사가 용이해집니다.

② 「핀테크 육성지원법」제정, 「금융-핀테크 매칭 플랫폼」 구축 등 핀테크와 금융회사간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겠습니다.

1. 「핀테크육성 지원법」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□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.

①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

* 디지털 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핀테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화

② 핀테크기업출자시 신속한 승인절차 등

* 예 : 사전승인 신청시 30일내 처리 등

③ 투자손실 등 발생시, 임·직원 면책 등

→ 금융회사가 명확한 법적근거에 기반해 핀테크 기업에 원활히 투자하면서, **금융-IT 간 실질적 융합이** 촉진됩니다.

2.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“매칭 플랫폼”을 구축하겠습니다.

□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수요를 매칭하는 「금융-핀테크 매칭플랫폼」을 구축하겠습니다.

○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·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·서비스·인력 등을 DB로 구축하여 상호 제공하고,

○ 매칭 성사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.

→ 금융회사-핀테크 간 협업을 통해 **금융회사의 디지털전환**과 **우수한 기술을 갖춘 핀테크 육성**이 이루어질 것입니다.

| 금융회사 | 제출 → ← 매칭주선 | 매칭 플랫폼 | 제출 ← → 매칭주선 | 핀테크 기업 |
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당면 과제(명세서), 조건(장비·보안요건 등), 협업 방향 등 | | 현황 파악 DB구축·관리 매칭 주선 | | 보유기술, 인력 보유 현황, 제안서 등 |

3. 핀테크 기업들의 IR·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.

□ 「코리아 핀테크 위크」 확대실시(1회→2회), KOTRA 핀테크 데스크 등 핀테크 기업들의 IR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.

→ **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, 해외진출 기회**가 확대되고,
금융회사·VC 등도 우수 핀테크기업과 협업기회가 늘어납니다.

③ 망분리 규제 합리화, 오픈뱅킹 고도화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핀테크·금융회사의 혁신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1.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
□ 핀테크, 금융회사,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「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」을 마련하겠습니다.(‘21.上)

○ 「금융규제 샌드박스」를 통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한 사례*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고,

* ①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고, ② 금융회사 내부망과 독립구성·운영되는 연구·개발사업(「금융기술연구소」)에 대해 망분리규제의 예외를 인정(‘20.4월)

○ 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, 고객정보 분리 여부,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→ 금융보안 등이 철저히 지켜지는 기반 하에서, **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** 등이 **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**이 마련됩니다.

2. 오픈뱅킹 참여기관과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.

□ 디지털 新산업 등과 오픈뱅킹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.

① 마이데이터 산업과 오픈뱅킹 간 연계(‘21년중)

➔ 마이데이터 앱에서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등을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
(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오픈뱅킹 이용기관으로 참여)

② 「어카운트인포」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(‘21.上)

➔ 핀테크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입력 필요없이 일괄 등록 가능
(현재 은행권만 이용가능한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API 형태로 추가 개방)

□ 참여기관 간 데이터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.

* (카드사) 결제예정금액, 결제계좌 등, (핀테크) 선불계정 잔액, 거래내역 등

□ 증권사·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오픈뱅킹에 참여합니다

→ 오픈뱅킹 참여기관 및 정보공유 범위 확대로 원스톱 자금이체 등 **이용자 편의**가 증대되고, **업권간 서비스 경쟁**도 촉진됩니다.

◇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「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
1.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.

□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, 사업 효과 등을 모의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□ 정부와 민간이 주요 정책과제(예 :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)에 대해 공동해법을 논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.

→ 모의시험을 통해 핀테크의 아이디어 보완, 사업화 준비가 가능하고, **취약계층 지원효과 등이 입증된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**가 기대됩니다.

2.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□ 핀테크 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(20년 대비 총 규모 31% 증가)하고, 보증·대출의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.

→ 핀테크 성장단계별 꼼꼼한 지원을 통해 **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**이 **체계적으로 육성**될 것입니다.

3. 샌드박스 신청 전(全)과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것입니다.

□ 외부 전문기관, 금감원,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법률·특허, 부가조건 준수 등과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것입니다.

→ 법률, 특허 등에 익숙하지 않은 **핀테크 스타트업·중소 핀테크** 등도 **금융규제 샌드박스**를 **보다 손쉽게 이용할** 수 있습니다.

4.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부서 기능·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.

□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핀테크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등 샌드박스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

→ 늘어나는 샌드박스 지원수요에 맞게, 관계기관 역량이 확충되어 **금융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**이 **차질없이 운영**됩니다.

Ⅲ. 향후 계획

- ① 수용 과제는 개선 계획에 따라 규정 개정,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·발표 등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.
 - 특히, 금융샌드박스 지정 검토 과제(예:소액후불결제)의 경우 2월 개최 예정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.
- ② 수용곤란 과제라 하더라도 추후 제반 여건 변화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(폐자부활전) 추진하겠습니다.
- ③ 아울러 향후에도 핀테크·빅테크의 혁신 잠재력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개혁 및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.
 - ❶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선을 위해 핀테크, 금융회사, 전문가 등과 정례적·상시적 의사소통 지속하겠습니다.
 - ❷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, 샌드박스 지정 건 등에 대한 동태적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.
- ④ 기재부, 과기부, 중기부 등 여러 규제가 복합되어 있는 다부처 복합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입니다.

[첨부1]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

[첨부2] 핀테크·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

[첨부3]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더 많은 국민에게 디지털금융 혜택이 제공됩니다.

사회초년생 등도
잔액 걱정 없이 후불결제 서비스를
이용할 수 있습니다

지금은 ☹️

사회초년생 등
금융소외계층은
계좌 잔액이 부족하면
꼭 필요한 지출도 어렵습니다.

앞으로는 😊

사회초년생 등도
플랫폼 정보를 바탕으로
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

플랫폼 이용 정보로
지급 능력을 확인한대요~

후불 결제 서비스로
급한 지출이 가능해졌어요~



금융과 기술(IT), 융합의 장이 마련됩니다.

디지털 기술에 목마른 금융 회사와
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핀테크회사의
만남이 쉬워집니다

지금은 ☹️

금융 회사 :

“핀테크 기술을 활용하고 싶은데
어떤 회사가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.”

핀테크 회사 :

“금융 회사에 우리 기술을
알리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”

우리 회사에서 필요한
기술·서비스를 찾았어요!

핀테크 기술을
홍보·활용할 수 있게
되었어요



앞으로는 😊

‘금융-핀테크 매칭 플랫폼(가칭)’을 통해
금융 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이 더욱 쉬워집니다.

(매칭이 성사되는 경우 지정대리인·위탁테스트 제도 참여 연계)

디지털 신사업, 도전의 기회가 열립니다.

중소 핀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

지금은 ☹️

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
중소 핀테크 기업은
중계기관의 정보처리 지원을
받을 수 없습니다.

앞으로는 😊

중소 핀테크 기업은 중계기관 이용이 가능해지고
국민들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고객정보 보호, 부가서비스 개발,
마이데이터 사업에
집중할 수 있어요

다양한 서비스를
이용할 수 있어요~



합리적인 디지털금융 환경이 마련됩니다.

망분리 규제가 보다 유연하게 개선됩니다

지금은 ☹️

엄격한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어
IT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

앞으로는 😊

업무 특성,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
망분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.

탄탄한 IT 기반을 쌓고
우수 인력을 총원해
디지털전환에 성공~

고객정보 보안은
더욱 철저하게
지키고 있어요~



핀테크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됩니다.

핀테크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하는
「디지털 샌드박스」를 도입합니다.

지금은 ☹️

핀테크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
부담 없이 시험해 볼 기회가 부족합니다.

앞으로는 😊

금융권 데이터를 바탕으로
새로운 핀테크 아이디어의
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.

정부와 민간이 함께
정책과제의 해법을 찾는
소통의 장이 마련됩니다.



**혁신금융서비스 지정, 서비스 출시, 사업고도화
운영과정 전반을 개선합니다.**

혁신성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고,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출시가 보다 활성화됩니다.



핀테크 기업에게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.

**기업 성장단계별로 정책금융 자금지원,
민간 투자자금 유치, 법률·경영 컨설팅 등
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**

지금은 ☹️

핀테크 기업들은
사업초기에 자금이 부족하고,
법률·특허·경영까지 신경쓰기가
어렵습니다.

앞으로는 😊

핀테크 성장단계별 촘촘한 자금지원,
법률·특허·경영 컨설팅 등
종합적·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.

혁신금융사업자 대상
전문 컨설팅 지원

맞춤형 사후지원

